



# 정교회주보

제2570호

2026년 3월 29일

한국 정교회 대구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만년설로 뒤덮인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배경으로 한 비시디아 안티오키아의 성 사도 바울로 기념 성당 터

(사순절 제 5주일)  
성 마리아 이집트 수녀  
성 마르코 아레투시온의 주교  
(제1조 • 조과 복음 9)

###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 수도자 찬양송 ..... 23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 사도경 : 히브리 9,11~14 ..... 234
- 복음경 : 마르코 10,32~45 ..... 141
-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 6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13회] 비시디아 안티오키아의 설교

**성** 사도 바울로 일행은 키프로스를 떠나 소아시아의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티오키아'에 도착했다. 당시 셀레우코스 1세가 시리아와 소아시아 전역에 세운 수많은 '안티오키아' 중 하나였던 이곳에서, 바울로는 안식일을 맞아 회당 연단에 올라 성서에 기록된 첫 복음 설교를 하였다.(사도행전 13,16)

그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며, 이집트 탈출과 다윗 왕조를 거친 모든 구원 역사가 오직 한 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을 드러내었다. 구약의 섭리는 '약속된 구원'을 향한 거룩한 과정이었으며, 그 약속은 죽음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밝혀 주었다.(사도행전 13,32-33)

특히 바울로는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 준수만으로는 온전한 의로움에 이를 수 없음을 밝히며,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통한 참된 자유를 가르쳤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죄에서 풀려날 수 없지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죄에서 풀려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사도행전 13,38-39) 이는 율법의 한계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죽음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 신앙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이제 바울로는 부활의 증인이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로서, 교회 역사 안에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우리들의 신앙

황경수 스테파노스 신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일상적인 삶에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우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시는지요? 삶의 주어진 환경에 변화를 주기 위해 어떤 이는 여행을 떠나고, 또 어떤 이는 평소 해보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해왔던 일에 도전을 합니다. 자유인인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그려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 내 인생도 한 고비, 두 고비 넘어 세월의 덧없음을 고백하는 시절에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장을 찾아보면 “어리석은 자들, 제 속으로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들 하면서, 썩은 일 추한 일에 모두 빠져서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1절) “언제나 깨달으랴. 저 악한들, 떡 먹듯 나의 백성 집어삼키고 주는 부르지도 않는구나.”(4절)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적어놓은 이 구절들을 오늘도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구에 신·구교를 합쳐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을 찾아 나서는 현대판의 \*디오게네스가 필요한 우울한 시대를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 교회인 정교회 신자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초대교회 신앙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던 ‘서로 나누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웃과 세상 속에서 증언해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 세상의 사

회 척도는 재물이 모든 가치를 우선하는 듯한 착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로 물신(物神)이 지배하는 오늘의 현실은 마치 사탄이 연출하고 그 꼬마 악령들이 확보하는 무대극과 같으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며 그 속에 빠져드는 일종의 팬데믹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 교우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우물쭈물 교과서 같은 교리로만 답하지 말고 내 깊은 영혼 속에 신앙고백의 울림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신앙생활의 연륜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기도 생활과 공동체 성찬예배를 통해 누구에게나 내 신앙과 믿음의 신비를 증언할 수 있는지요? 만일 살아 계신 하느님을 기도와 성찬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관념적인 신앙, 쪽정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수많은 정보를 생산하며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 현란한 어지러움 속에서 잠시 넋을 놓으면 내가 어디에서 있고 어디로 가는지 삶의 방향조차도 금세 놓쳐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날, 그제서야 “아!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하고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내 삶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문으로 향하고 있으니! 부자가 아브라함 선조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에게 뒤늦은 통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디오게네스 : 알렉산더 대왕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하자,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 달라”고 답한 철학자. 삶의 가치와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줌.

# 기도: 입술에서 마음으로 (2)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고향과 영원한 평화,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나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의 존재 방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정신이 떠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그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속삭이는 소리처럼 우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웃을 형제자매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 안에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은밀히 감싸주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더 이상 원수는 없고, 오직 고통받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공감이나 이기심

없이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쉽고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참된 기도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기도는 우리가 어떤 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헌신과 의지를 바칠 뿐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지혜와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십니다.

이러한 것이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열매들입니다.

이 거룩한 대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 이런 종류의 영적 열매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때로 작은 방도 사랑이 있다면 궁전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미움으로 가득 찬 궁전은 그저 초라한 헛간이 될 뿐이다. 솔직히 말해,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창문을 통해,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읽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영적 가치도 없는 건물일 뿐이다."

##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과
- \* 수요일(4/1), 금요일(4/3)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토요일(4/4) 오전 9시 라자로의 부활 토요일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바랍니다.)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



### ■ 서울 성당 꽃 심기

오늘 점심식사 후에 부활절 맞이 꽃 심기를 합니다. 모두 참여 바랍니다.

### ■ 부활절 달걀과 꽃 봉헌 신청

부활절 달걀과 에피타피오스 꽃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 성당

#### 장로회 신대원 학생들 방문

지난 18일(수), 장로회신학대 학원 학생들 약 30명이 서울 성당을 방문하여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로부터 정교회에 관한 설명을 듣고,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에 참석했습니다.

## 성 대 주간 및 부활절 예배 안내

4월 5일	성지 주일	오전 8:45	조과,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오후 1:30	신랑 의식
4월 6일	성 대 월요일	오후 6:00	신랑 의식
4월 7일	성 대 화요일	오전 9:00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신랑 의식
4월 8일	성 대 수요일	오전 9:00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성유 성사
4월 9일	성 대 목요일	오전 9:00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6:00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식 (12 복음 봉독)
4월 10일	성 대 금요일	오전 9:00	대시과 (1, 3, 6 시과)
		오후 3:00	9시과, 만과,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의식
		오후 6:00	에피타피오스 의식
4월 11일	성 대 토요일	오전 9:00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8:00	부활절 의식,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4월 12일	부활 주일	오전 11:00	사랑의 대만과
		오후 12:30	사랑의 오찬

(지역 성당 예배 시간은 해당 성당에 문의 바랍니다.)

###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 조지아 총대주교 안식

지난 17일, 조지아의 일리야 총대주교께서 안식하셨으며, 22일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께서는 세계 각지의 정교회 자치 교회들과 총대주교좌들 가운데 첫 번째 주교로서 장례식을 집전하셨습니다.

### ■ 부산 성당 축일을 보내며

성모 희보 축일을 맞아 지난 21일(토)에 대만과와 아르토 클라시아 예식을 거행하고 축일을 맞는 신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주일에는 조과와 성찬예배를 통해 축일을 기리고, 성모님의 축복이 가득 내리기를 기원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서울 성당 장년회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